

나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30대 때 산에 있을 때는 팍팍 늴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환자 같아 보입니다. 여기 있으니 얼굴이 더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밤, 낮으로 잠도 못자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연결해서 설교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낮이고 유럽은 밤이니까 나는 자야하는 시간인데 그 나라는 시작인 것입니다. 다 모여 있으니 설교 해달라고 각 나라마다 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오래 하다보니까 잠도 못자고 과로가 되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과로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알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까지 해보자’ 하고 말씀 전 하다가 쓰러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남자가 과로가 심해져서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세였는데 죽었습니다. 과로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회원도 과로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쇼크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아픈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잠 못 자니 과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명이 기십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프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흰 손이 와서 어루만져주셨습니다. 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고맙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면 91살이라도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는 엄청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농사지으며 사신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회복되신게 엄청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확 좋아지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상태가 좋아지신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더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크게 잘 될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그만큼 크게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희망했던 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도 여기서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어머니)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는데 여기 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모르면 안 됩니다. 만날 이루어 질 거라 생각하면서 쳐다만 보면 그러다 늴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란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도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가와도 소망이 이뤄지고 눈보라 치는 환란 가운데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기도한 것을 다 이룬 것이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소망도 미래의 소망도 현실에서부터 점점 이루면서 나가십시오.

의학 공부 한 사람들은 의사들이니까 아픈 사람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살피주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진짜 하나님도 잊고 예수님도 잊어버립니다. 계속 아프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구나’ 하고 몸부림 가운데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쫓아다니고 위로도 해주며 붙잡아 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아픈 자, 약한 자, 배고픈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겪어보셨기에 아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픈 것 뿐 아니라 그냥 막 자살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12000명이 더 됩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평화롭게 천국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인 것입니다. 다 조건이 되어서 천국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 ‘부자 되면 천국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어도 죽습니다. ‘결혼 하면 천국이겠지’ 하지만 결혼했어도 천국같이 못삽니다. 결국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건 기도하기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죽은 기도입니다. 3~4시간 기도하니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